

97. 7. 17

고통속의 5만여쌍 웃음 찾아

여성계 “남녀평등 토대 마련”…유럽 “국민윤리 붕괴” 시위

‘동성동본’ 헌법불합치 반응

헌법재판소가 16일 동성동본간 금혼규정에 대해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리자 여성계는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크게 환영하는 반면 유럽과 각 종친회 등은 반대성명을 내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36) 정책부장은 5만여쌍의 부부와 “여성계가 오랫동안 열망해온 일이 이뤄졌다”며 “개정 시한이 98년말인데 하루빨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민우회 박진경(27) 지역사업부 차장은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로 그동안 고통받아온 동성동본의 부부가 혼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계혈통 중심으로 된 가족법상의 여성차별적 조항을 개정하는 데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이연숙(62) 회장은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근친혼 금지는 부계뿐 아니라 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은 조만간 전국유럽총회를 열어 신한국당 항의집회를 계획하는 등 이번 헌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관장 최근덕)에는 헌재 결정이 알려지자 전국 유럽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남상륜 성균관 부속실장은 “일부 유럽은 ‘자살을 하겠다’는 극한 주장을 할 정도로 흥분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성균관은 산하 가족법대책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내어 “국민 대다수의 감정을 무시하고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도덕성 부재의 시대를 조장하려고 하고 있다”며 “증명이 되지 않는 생물학적, 우생학적 논의는 차치하

라도 고려 총렬왕(1270년) 이후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해 시행된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럽 70여명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성동본 금혼법 사수하여 전통문화를 수호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민윤리 무너졌다” “금혼법을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일반 시민들은 헌재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합리적인 규정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 이광규 교수(인류학)는 “동성동본 결혼의 허용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현재 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입을 의무가 있는 8촌까지를 뜻하는 ‘유복친’ 또는 동성동본 중에서 10대 전후의 같은 파를 나타내는 ‘소문중’을 한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권혁철 기자

‘족쇄’ 풀기 앞장 광배희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남녀불평등조항 개정운동 계속

그동안 동성동본의 ‘족쇄’에 묶인 부부들의 고통을 여론화하는데 앞장섰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김홍한)는 특히 95년 8쌍의 부부가 위헌 제청 신청을 내도록 도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밑거름을 뒀다.

이 상담소 광배희(51·사진)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남녀평등의 가장 큰 정신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결정의 의의는.

—우선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보장받게 됐다는 점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5만여명 돌아 이어져온 ‘부계혈통’

중심의 가치관을 남녀평등, 부부평등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확보했다는 점을 꼽고 싶다.

—그동안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는데 왜 이제서야 위헌 결정이 나왔나.

—지난 58년, 77년, 89년의 세 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 때도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고쳐지지 않았다. 동성동본 금혼을 오랜 미풍양속이라고 여겨온 데다, 근친혼과 같은 것이라는 오해가 컸던 때문이다.

—금혼규정 폐지운동은 어떻게 펼쳐나.

—실질적으로는 피해 당사자들이



90년 피해자신고센터를 연 뒤 95년까지 1천5백여쌍의 부부가 피해를 접수했다. 이들이 동성동본금혼법 개정을 위한 당사자모임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8쌍이 위헌제청 신청을 낸 것이다.

—앞으로의 활동은.

—아직 민법에는 부분적으로 남녀평등 차별조항이 남아 있다. 남자, 그 가운데서도 장남이 호주순위에서 앞선다는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불평등 조항을 없애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자겠다. 권혁철 기자